

강진 '새청무쌀' GS25 편의점 입점

도시락·컵밥 등 조리제품 연 2,900톤 납품
인천·경기서부권 판매... 품질 우수성 입증

강진군에서 생산된 '새청무쌀'이 도시락, 김밥, 컵밥, 주먹밥 등 밥류 조리제품 형태로 인천·경기권 GS25 편의점에 입점했다. 새청무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해 강진군을 중심으로 최근 전남지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벼 품종이다. 미질이 좋고 도복에 강하며 수량이 높다. 또 타 품종 대비 도정수율이 높고 쌀알이 작고 찰기가 적다. 강진군농협통합RPC와 농업기술센터는 이같은 장점을 이용해 밥류 가공 조리제품을 GS25 편의점에 연간 2,900톤(70억원)

규모로 납품할 계획이다. GS25 편의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편의점으로 전국에 권역별로 11개소의 프레쉬푸드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 새청무쌀은 경기도 오산의 후레쉬푸드와 인천시 후레쉬푸드 2곳에 납품돼 밥류 조리제품으로 제조된 후 인천·경기서부권 GS25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강진군농협통합RPC는 새청무 조리제품의 시장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GS리테일 식품연구소에 테스트용 샘플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품



새청무쌀. 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로 재

배기술 지도 및 원료관리로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주 3회 60톤의 규모로 강진산 새청무쌀이 납품되고 있다. 김호희 강진농협통합RPC 팀장은 24일 "GS25 편의점 납품을 위해 안전립을 90% 이상, 분상질립 및 쌀겨 비율 5% 이하, 수분 14% 유지 등 관리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안준섭 전남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은 "가공성이 뛰어난 새청무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1인 가구 비율 증가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 이번 GS25 편의점 납품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철저한 재배 및 품질관리 지도를 통해 새청무쌀의 판매 다각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화산 구형항에 운영중인 10t급 다목적 인양기. /해남군 제공

해남 항·포구 15t급 어선 인양기 설치 도내 연안 시군 최초... 선박 규모화 등 대응

해남군이 도내 연안 시군 최초로 15t급 어선 인양기를 설치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노후화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양기 5대를 포함해 21기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포함해 2003년부터 총 97기의 어선 인양기를 설치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24일 "어선 인양기는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결과 어업 재난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양기의 규모를 상향해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화산면 구형항 등 19곳에 20여대를 들여 15t급 인양기를 상반기 안에 설치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노후화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양기 5대를 포함해 21기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포함해 2003년부터 총 97기의 어선 인양기를 설치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24일 "어선 인양기는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결과 어업 재난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양기의 규모를 상향해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화산면 구형항 등 19곳에 20여대를 들여 15t급 인양기를 상반기



신안군은 지난해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전통기술 보전을 위해 7명의 장인을 선발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 '맨손 낙지잡이' 장인 처우 개선

2년간 200만원씩 장려금... 전통어법 보전

신안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갯벌낙지 수산업(맨손낙지잡이) 장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들에게 기술 장려금을 올해부터 2년간 2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신안군은 맨손으로 갯벌낙지를 잡는 기술과 전통적인 어법을 보존하기 위

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낙지잡이 대회를 개최해 7명의 장인을 선발했다. 조례에 근거해 '신안군 수산업 장인'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연 2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을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신안군의 맨손낙지잡이는 약 1,000여어가 연간 20만여점을 생산해 36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현재는 1점당 20만원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신안=이주열 기자

신안군은 오는 6월 압해읍에서 섬낙지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162km의 넓은 갯벌도립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의 특성을 살려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전통기술과 문화를 계승하고 어촌의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탕탕이, 초무침, 볶음, 호롱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녀노소 즐겨 먹을 수 있는 대표 수산물이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집까지 책 배달해 드립니다" 해남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읽고 싶은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안심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남 군립도서관 이용자가 도서대출을 신청하면 도서관 직원이 방문 시간을 정해 집 앞으로 배달해 주거나 군민광장 지정 부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전화·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대출 신청하고,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진행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23일에만 100여건의 신청이 밀려들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해남군은 지난달 26일부터 군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주요 다중이용 시설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가중돼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남 군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임시휴관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약은 전화(061-530-5890)나 군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haenam.go.kr)에서 하면 된다. 해남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700여종의 전자책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씨월드고속훼리, 진도~제주 1시간 30분 주파

씨월드고속훼리(주)는 24일 "진도-추자-제주 항로에 신조 쾌속 여객선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해양수산청의 진도-제주 항로 여객선 신규항로 사업 공모에서 사업수행능력과 재무 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업자에 선정됐다. 2019년도 해수부에서 선정한 고속만족 평가 종합 우수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제주 항로에 대형 크루즈 카페리 2척, 쾌속선·화물선을 운항하고 있다. 속력 42노트, 여객 700명, 차량 79대 등을 싣고 제주까지 직항운행 시 1시간 30분에 주파할 수 있는 쾌속선으로, 2022년 3월 취항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내 최고 연안 여객 종합운송회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투자로 꿈과 같았던 진도-제주 항로가 개설돼 지역주민 교통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태 기자

'코로나 확산 방지'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취소

완도군은 24일 "군민·관광객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0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애초 5월 2일부터 나흘간 완도항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었다. 장보고수산물축제는 1996년부터 매년 5월에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완도 수산물을 알리는 축제다. 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국가적 분위기와 지역 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역 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군 관문인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등에서 체온계로 모든 차량 탑승자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강진 대국민 공모 2020 축제 포스터 선정

강진군은 24일 "최근 축제 포스터 대국민 공모전 3차 최종심사를 갖고 2020년도 축제 포스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공모는 올해 개최 예정인 '제48회 강진청자축제'와 '제5회 강진만춤는 갈대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청자축제 25점, 갈대축제 23점 등 총 48점의 작품이 접수돼 각각 대상 1점, 입선작 4점을 선정했다. 강진군은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 포스터를 확정하고, 4월 중 당선작 공개 이벤트를 개최해 군수 상장 및 시상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무안 망운면, 톱머리 해변 정화활동

무안군 망운면은 최근 망운면 청년회(회장 정국진)주관으로 청년회원, 공무원, 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톱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봄맞이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정화활동은 톱머리 해안도로와 백사장, 주변 송림 일대에서 진행됐고, 5톤 가량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정 회장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며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과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선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망운면 관계자는 "정화활동 대상지를 사전조사한 후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완도 '도민안심식당' 12곳 운영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을 운영 중이다. 도민안심식당은 자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모두 12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완도군은 안심식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나란히, 나란히 앉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식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민안심식당은 완도군청 위생팀(061-550-5441-2)에 신청하면 업소 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완도=최규욱 기자